

TB\_Response1\_Reichel\_20251018\_Korean

한나 라이미, 니베디타 메논 교수에 대한 응답문

2025년 10월 18일, 총회 발표

메논 교수님, 깊이 있고 영성 있는 풍성한 발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정의에 향한 다양한 투쟁의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정의 추구를 사유하는 인식론적 원리들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질서, 그리고 무질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 신학적 관점에서 한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는 '파미너리(Farminary)'라 불리는 소규모 지속가능 농장이 있습니다. 파미너리는 학생들에게 음식과 농업, 공동체와 생태, 그리고 쉼과 노동에 대해 가르치며, 그 수확물은 학교 식당과 지역사회에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곳에서 「질서와 혼돈의 신학(Theologies of Order and Chaos)」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실존적 경험—개인적, 공동체적, 정치적 경험—은 대부분 '질서'와 '혼돈'의 경험으로 서술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의 핵심 전제는, 창조·섭리·종말과 같은 신학 교리들도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질서와 혼돈을 해석하기 위해 발전된 신학적 서사이자 개념적 틀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은 '질서'와 '혼돈'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학생들은 병의 발병, 성폭력, 자녀의 죽음과 같은 삶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창조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가 되며,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성적 지향, 젠더 표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구조적 억압을 겪은 학생들에게 창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넘치는 에너지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그들의 소망과 신앙은 더욱 온전히 드러납니다.

테마 입력 B: 응답 1. 테마 입력 B, 10월 18일. 13:45 부터 15:00 까지

TB\_Response1\_Reichel\_20251018\_Korean

어느 해에는 학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허리케인이 파미너리를 강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풍성한 여름 수확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하수 범람으로 오염된 작물을 거두어 퇴비로 만드는 '애도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해 학생들은 과거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질서'와 '혼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필요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들을 알맞게 정의할 수 있는 '차등적 신학(differential theology)'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의 또한 차등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정의도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교정적으로 투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다양한 경험에 뿌리내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불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정의 또한 단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정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주저함은 하나의 윤리적 경계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에 대한 단일한 개념은, 불의가 가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실을 온전히 '정의롭게' 다루기보다(말장난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억압적이고 해로운 체계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초국가적 정의(postnational justice)' 개념에 깊이 공감합니다.

'초국가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세계시민주의적 낙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약속하는 거짓된 보편주의를 넘어서는 동시에, 그 아래층까지 확장되는 이중적 '외부성(outsidism)'을 뜻합니다. 정의는 교수님께서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추상적인 세계질서도 아니며, '조국 중심적(homelandist)' 순수성과 진정성의 주장도 아닙니다. 정의는 언제나 지역적(local)이며, 따라서 차등적(differential)입니다.

때로는 이동을 허락하는 것이 정의이고,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는 정의가 상대적이거나 임의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는 구체적이며, 지역에 뿌리내리고, 경계를 넘으며, 물질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차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정의의 이러한 '구체적인 외부성(concrete outside)'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경제가

테마 입력 B: 응답 1. 테마 입력 B, 10 월 18 일. 13:45 부터 15:00 까지

TB\_Response1\_Reichel\_20251018\_Korean

작동하는 기반 위의 '위층(over)'과 '아래층(under)', 즉 그 이면의 다른 층에도 동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의는 결코 추상이 아니며,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동시에 지향적 개념(aspirational category)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의가 허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불의의 구체적 형태를 바탕으로, 그 불의를 교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의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조정적으로(correctively)'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외침은 새로운 '올바른 질서'를 설계하거나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와 무질서를 동시에 교란시키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정의는 우리 안의 외부로 가리키며, 동시에—교수님께서 통찰력 있게 지적하셨듯—그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설명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이해에는 깊은 신학적·종말론적(eschatological)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신의 외부로 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인내와 창의성을 가지게 합니다. “권력의 형성이 완전히 공고해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외부가 언제나 존재한다”고 메논 교수는 말합니다. 퀴어·페미니스트·탈식민주의 신학자들은 이 '외부'를 비판적 인식론(critical epistemology), 즉 주변부로부터 오는 통찰의 원천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외부에서 통찰과 판단, 그리고 회복을 찾게 됩니다.

약 75년 전,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첫 총회가 암스테르담에서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섭리(Man's Disorder and God's Design)”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쟁과 대학살로 폐허가 된 세계, 그리고 민족주의·법·기술·도덕이 그 참상에 공모한 현실에 대한 환멸 속에서, 총회는 세상을 '무질서한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이는 어거스틴적 전통을 따라, 사회적·정치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죄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보편 교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회의 증언”, “사회적 무질서 속에서의 교회”, “국제적 무질서 속에서의 교회”를 분별하며 신학적·윤리적 방향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분명 높이 평가할 만한 신학적 노력이며, 이후 세계교회 운동과 평화·정의 사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테마 입력 B: 응답 1. 테마 입력 B, 10월 18일. 13:45부터 15:00까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제가 느끼기에 가장 두려운 일은 '올바른 질서'를 설계하려는 시도 자체보다, 그 질서의 보증인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교정적 투사(corrective projection)'에 불과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 우월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서'가 '무질서'보다 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과, 기독교 신학 자체도 죄에 깊이 얽혀 있음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질서'도, '기독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부 요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질서와 무질서 모두, 그들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고통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실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증언에 있어 인내란, 곧 기독교가 저지른 공모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질서의 보증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설계도의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와 무질서, 둘 모두를 깨뜨려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는 분, 그리고 그 양쪽 모두에 개입할 수 있는 비판적 인식론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증언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체계를 교란시키고 우리의 갈망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환영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내는, 질서와 무질서 모두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국가·가정·심지어 교회라는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구체적이고 성육신적 연대를 발견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우리에게 인식론적 겸손(epistemic humility)을 가지게 합니다. 교회와 사회의 주변부, 퀴어·페미니스트·탈식민주의 신학, 그리고 교회 밖의 타종교 전통·토착적 지혜·생태적 통찰로부터 오는 외부의 소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자각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증언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정의의 사역을 '부정적인 것' 혹은 '긍정적인 것' 중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갈등과 분별, 숙고와 변혁의 참여 행위로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TB\_Response1\_Reichel\_20251018\_Korean

메논 교수님, 이러한 깊은 통찰과 영감을 나누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